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 직속 다이내믹 청년 선거대책위원회

담당자: 홍서윤 수석대변인(010-4455-8255)/유민아 대변인(010-6559-3099)

<청년기회국가> 이재명이 약속합니다!

- 17일 광화문 유세

- 이재명 후보, 청년과 함께 '청년기회국가' 만드는 대국민 서약

○ 이재명 후보, 기회 자체를 넓히는 '청년기회국가' 만들겠다고 약속해

○ 청년 2인, 국민서약 대표로 나서

17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4개의 서울 지역을 방문하며 집중 유세를 펼쳤다. 오늘 유세는 '위기 극복과 경제·통합'이라는 핵심 메시지와 함께 부동산·개혁 대통령·자영업·청년을 키워드로 이어졌다.

특히, 촛불 혁명의 시작점인 광화문 광장에서는 '대한민국의 성장과 혁신을 위한 대국민 서약식'을 청년선대위 김하영·박한울씨가 이재명 후보와 함께 진행했다. 김하영(27세)씨는 안양청년소통허브 대표로 다이내믹 청년선대위 리스너 프로젝트에 함께 참여했다. 김씨는 청년활동가로 일하며 코로나19로 인한 미취업, 1인 가구 청년들의 어려움 등 청년세대 내 사회적 문제와 소외 집단의 이야기를 가장 가깝게 들어왔다.

박한울(30세)씨는 현재 청년선대위 청년노동플랫폼 위원장으로, 과거 에어컨 설치기사로 일하며 청년노동자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이재명 캠프에 합류했다. 그는 청년선대위와 함께 경남 거제 조선소와 충북 청주 LG화학공장의 청년노동자들과 간담회를 가져왔다.

이재명 후보는 두 청년국민서약 대표와 함께 서약서에 사인을 하는 서약 퍼포먼스를 하며 '청년기회국가'로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서약서에는 ▲주 4.5일제 도입 추진·포괄 임금 약정 제한, ▲생애 한 번, 자발적 이직 실업급여 지급·상병수당 확대, ▲가상자산 합리화(수익 5천만원까지 비과세, 5년간 이월공제), ▲월세 세액 공제 대폭 인상, 5년 전 월세까지 이월 공제, ▲청년 신규주택 30% 우선 배정, 금융지원 대폭 확대 등의 공약이 담겼으며, 청년들에게 주어지는 기회 자체를 넓히겠다고 약속했다. //끝

[첨부1] '청년기회국가 이재명이 약속합니다' 서약서

더불어민주당

청년기회국가, 이재명이 약속합니다

- 📍 주 4.5일제 도입 추진 · 포괄임금약정 제한
- 📍 생애 한번, 자발적 이직 실업급여 지급 · 상병수당 확대
- 📍 가상자산 합리화 (수익 5천만원까지 비과세, 5년간 이월공제)
- 📍 월세 세액 공제 대폭 인상, 5년 전 월세까지 이월공제
- 📍 청년 신규주택 30% 우선배정, 금융지원 대폭 확대

**더불어민주당 제20대
대통령선거후보 이재명**

서명 _____

**청년에게 희망을!
더 나은 나라 위해**

서명 _____

[첨부2] 현장사진



